

연극 <해리포터> 수상(Olivier Awards)과 정부 지원금의 의미

글 김준영(런던 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문화 산업 가운데 라이브 공연을 놓고 부정적인 분석을 내거나 또는 강력한 산업적 면모가 있다고 의견이 양분되더라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 기술이 아닌 살아있는 몸들이 모여 똑같은 작품을 한 주 동안 여덟 차례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공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플 수 있고, 지각할 수 있으며, 휴가를 간다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극장에 모여 있는 관객들을 위해 이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런던 웨스트엔드로 출근하는 필자는 매일 작은 마법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마치 정교한 안무가에 의해 짜여지거나 한 것처럼 익숙한 얼굴의 박스오피스 직원들과 백스테이지 도어를 지키는 사람들, 무대 크루들을 포함한 제작팀, 장치 조명 오퍼레이터, 연주자, 무대 감독과 배우, 그리고 가끔 막간에 프로그램이나 아이스크림을 팔지만 많은 경우 배우 지망생인 어셔(Usher)들까지 약 50개가 넘는 상업 극장으로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해 분-초 단위를 따져가며 그것도 각자가 아닌 서로 소통과 교감을 이루며 어젯밤 주었던 감동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똑 같이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소름이 돋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공연을 업으로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종(Species)의 출현이 아니었을까?

매년 봄이면 1년 동안 런던 내 무대에서 상연된 공연만을 두고 업계 최고의 시상식이 열리는데 이번 올리비에(Olivier Awards, 4월 9일)에서는 5시간짜리 장편 연극 <해리포터(Harry Potter and the Cursed Child)>가 다른 모든 장르를 제치고 최고의 마법사(Wizard)가 되었다. 아홉 개 부문을 휩쓸기 전에 이미 연극 장르에서 최다 후보 기록을 세웠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평론가들은 “영국연극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얼마나 팔았느냐 하는 박스오피스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본 작가인 잭(Jack Thorne-외에 연출가와 원작가가 함께 작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출가인 존(John Tiffany), 그리고 늘 그와 함께 작업하는 움직임 연출가 스티븐(Steven Hoggett)까지 모두가 다름 아닌 정부의 문화 정책으로 인해 지원된 보조금으로 공연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임을 높이 사는 표현이었다. 따라서 이번 시

상식은 정부의 일관성 있고 꾸준한 지원금이 영국 문화 산업의 성장과 성공에 어떻게 자양분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연극 <해리포터>는 그저 이를 상기시켜준 점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2012년 가을 명동예술극장에서 올렸던 <한꺼번에 두 주인을(One Man, Tow Guvnors)>이란 작품이 우리에게도 알려진 바 있는데 같은 해 영국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제임스 코든(James Corden)이 미국의 토니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우리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없었다면 영국 연극이 미국에서의 성공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었다. 2012년 런던의 국립극장(NT)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만들어진 연극 <한꺼번에 두 주인을>이 미국으로 수출되어 수상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재능 있는 예술가들은 타고 난다고 하는 다소 낭만적인 거짓말에 영국 공연계가 빠져있을 때 지난달 로얄 알버트 홀(Royal Albert Hall)에 모인 예술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매일 밤 극장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 냈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경험이 축적되고 끊임없는 협업을 통해 갈고 닦아진 것이라는 점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승리가 있다면 이 연극이 관객의 관심을 진심으로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이라는 곳을 생애 처음 가본 “사건”이었고 연극 <해리포터>를 만든 창작진이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기대를 넘어서 경이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 사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연극 장르에서는 좀처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반응이다. 이 작품은 상업적 접근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제작되었지만 이를 만들어낸 창작진들의 DNA는 영국 예술 위원회(ACE) 지원금의 근간이 되고 있는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접근, 즉 “누구의 누구를 위한 예술인가?”라는 논리를 통해 볼 때 적어도

한쪽으로는 비료가 되어 다양한 관객을 모았다는 것에 또 하나의 승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정책은 최근 유행처럼 끊어지거나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자 강한 미국을 위해 예술 지원금 전액 철회(National Endowment)를 발표했고 이를 두고 “America First, Art Last”란 말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영국도 런던 올림픽 이후 줄기차게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과 달리 영국의 지원금은 젠더(Gender)뿐 아니라 컬러(Colour)로 임혀지는 인종의 다양성에까지 포괄해 쓰여야 하는 복잡한 형국이지만 줄어드는 지원금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비추어 낼 수 없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이고 예술인가?

영국연극에서 정부 지원금 아래서 성장한 예술가들이 그동안 어떤 면에서 지원금의 장점을 입 모아 말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보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작품에 투자가 허락 된다”는 것과 “예술의 향유” 문제이다. 전자를 놓고 보면 물론 투자적 관점에서 리스크가 크겠지만 예술가들의 경험상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높은 가치의 예술작품이 완성도 있게 나타날 수 있기에 그들은 이를 “최고 가치의 예술적 조우(The most valuable artistic encounter)”라고 말하며 지원금의 장점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단순하게 상업적 논리만론 이런 불확실성을 두고 투자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래서 지원금이 아니라면 《워 호스(War Horse)》 같은 미친 실험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작품은 국립극단이 자체 기획한 것이 아니라 외부 단체가 종이인형을 만들어 국립극단을 찾아와 제작투자를 의뢰하였고, 국립극단에서 심사를 통해 제작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당시 쇼케이스를 보고도 제작을 결정할 상업 프로듀서는 없었다고 회고된다.

다음으로는 바로 예술 작품의 향유의 문제인데 영상문화처럼 무한 복제가 되지 않은 라이브 공연은 어쩔 수 없이 제작비 환수가 쉽지 않아 접근 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소외 계층은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도 소외가 발생하게 되는데 정부의 지원금이 이런 격차를 줄여 공연을 더욱 낮은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영국이 유럽 창조 산업의 수도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많은 연극인들은 자신들이 창작해낸 작품들로 인해 자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축하하는 동안 순수하게 “예술만을 위한 투자”로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야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RSC) 창작진들이 《레미제라블(Les Miserable)》을 만들고, 《마틸다(Matilda)》로, 《워 호스》의 창작팀들이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사건(Curious Incident of the Dog...》으로, 그리고 에든버러 프린지 극장에서 오랫동안 대본과 싸워오던 무명 감독이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을 거쳐 뮤지컬 《원스(Once)》와 마침내 연극 《해리포터》로 이어지는 연극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October 2015 Workshop . l-r Jack Thorne, J.K. Rowling and John Tiffany. Photo by Debra Hurford Brown ©J.K. Rowling



《War Horse》(출처: NT)



《Curious Incident of the Dog...》(출처: NT)